

# 하나님의 말씀

예언 - 재난과 불행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서론.....	5
3232 예언의 성취.....	5
6470 자연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다.....	6
8768 어떤 창조물도 무의미하거나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	7
4062 지옥. 심판을 받은 물질.....	9
하나님의 뜻에 따른 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의 해방.....	11
2175 화산의 분출은 굳은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한다.....	11
2448 이 땅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화산 폭발.....	12
2449 자연의 재난과 그에 대한 영적인 설명.....	13
2744 연구되지 않은 자연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의 원소적인 역사.....	14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영적인 존재가 형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에 인간의 참여.....	16
2915 굳은 형체의 파괴. 성장 과정의 시작.....	16
3993 물질을 재구성한다. 일하는 축복. 구원.....	17
7065 주변에 묶임을 받은 존재들의 구원.....	18
굳은 형태를 조기에 파괴하는 일과 그의 결과.....	21
1508 위기. 강제적인 조기에 이뤄지는 죽음. 자연 재해.....	21
2313 일찌기 파괴하는 일과 그의 결과.....	22
3300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역사의 결과.....	24
4965 하나님은 대적자의 파괴하려는 의지.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와 인간.....	25
6666 조기에 파괴되는 일. 세상적인 재물을 쌓아두는 일.....	27
1011 발명품. 자연의 힘. 믿음.....	28
0737 자연의 법칙... 이 땅에 주는 변화와 과잉 착취.....	29
0738 (0737 에서 계속) 자연의 법칙... 이 땅에 주는 변화와 착취.....	30
0739 (0737 및 0738 에서 계속) 자연의 법칙... 이 땅에 주는 변화와 과잉 착취.....	30
6855 공기와 물과 음식물의 오염.....	31
1888 식물의 감소. 폭풍과 기후적인 자연재해.....	32
6330 운명적인 일에 대한 설명.....	33
6635 재난과 비참함. 하나님의 뜻이나 또는 하나님의 허용.....	34
3258 이 땅을 일찍 떠나는 일. 목적.....	35
7475 환란에 대한 정보.....	36
8080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계시하신다.....	37
대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가르침.....	40

8542	세상적인 발전. 곧 일어나는 파괴.....	40
2086	자연재해의 목적.....	41
2785	사람의 의지를 통한 파괴.....	42
3925	하나님의 말씀과 조용한 경고자. 큰 목소리와 자연 재해.....	43
6870	종말에 대한 예언과 경고.....	45

예언의 성취.

B.D. No. 3232

1944년 8월 25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알려준다. 또한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 그들이 언젠가 몰랐다고 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예언의 말씀으로 너희 귀에 도달하는 것에 너희 귀를 막고, 비웃거나 조롱하면, 나의 경고와 훈계가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믿도록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워지면 그들은 떨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또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류는 더 이상 영의 나라에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 세속적이어서 영적인 재물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상을 줄 수 없고, 명백한 기적을 통해 그들이 믿도록 강요할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원래는 전적인 의지의 자유로 활동 했었고, 강제로 믿으면 그들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온전하지 못하게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인간의 입을 통해 표현할 수 있고, 진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갈망과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 나의 말씀을 알아듣기 원할지 여부는 그들에게 맡겨야만 한다. 왜냐면 내 말이 이제 그들에게 들리고, 그들이 모든 훈계와 경고에서 말씀을 주는 분을 깨닫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영적인 계시 앞에 영적인 계시를 향한 의지가 부족한가! 그들은 어떤 것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계산에 따라 사건들을 인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적게 그들의 성품을 바꾸는 일을 하느냐! 그들이 가까운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들은 단지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그들의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놀라게 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진실로 너희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모든 일이 영원부터 나의 계획에 따라,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이 땅의 나의 일꾼을 통해 예언한대로 일어날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 인간들은 이제 내가 단지 너희의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로부터 단지 저항을 받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단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너희 혼을 나와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향한 의지가 너희가 나의 말씀과 마지막 때에 내가 행하고 역사하는 일을 깨닫게 하고, 때가 되면 비로소 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예고한 일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내가 나의 영을 통해 진리와 전적으로 모두 일치하는 지식을 이 땅에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래 전에 너희에게 예고한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너희가 이를 통해 언제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는지 알아야 한다.

자연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다.

B.D. No. 6470

1956년 2월 7일

**주** 재들의 자유의지가 나와 존재들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다. 이런 자유의지가 또한 다시 나와 연합하는 일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나 내 뜻은 항상 연합하는 일을 지원할 것이다. 왜냐면 연합하는 일이 너희에게 또한 나에게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의 자유의지에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로 너희의 의지와는 반대로 연합을 이루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너희 자신이 단지 불행한 상태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불행한 상태는 항상 나로부터 분리를 의미하고 무한하게 축복된 상태는 나와 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운명을 정한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아직 나에게 저항할 지라도 나는 너희가 택한 운명에 너희를 맡겨두지 않는다. 나는 진실로 너희의 구원을 돕기 위해 아직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지 않고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증거인 자유의지가 내 권세를 묶는다. 나는 너희를 패배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랑이 너희를 피할 수 없게 나에게 향하게 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축복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얻는 일은 단지 너희가 나 자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깨닫는 법을 배워야 가능하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단지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내 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내 은사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의 생각이 아직 너희를 축복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선물해주기 원하는 것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너희에게 너희의 감각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것을 너희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창조물과 자연을 통해 너희에게 말해야만 한다. 창조물과 자연은 마찬가지로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너희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할 수 있고 또한 너희의 생각을 나에게 향하게 할 수 있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 주위에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을 기억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창조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증명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싸고 있고 때때로 너희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들 때문에 너희에게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증명할 수 있다.

자연의 창조물들은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충만한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의 창조물들을 통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신성에게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창조물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친다. 왜냐면 그들의 생각이 물질 세계로 향하고 물질 세계 외에는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의지에 강요할 수 없고 단지 그들이 나 자신을 기억하도록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이런 일이 고난과 운명적인 일과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을 통해 일어나야만 한다. 내 사랑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는 일은 이제 더 심한 수단을 통해 시도해야만 한다.

내 사랑과 지혜의 증거를 창조물에서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권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세로 내 권세에 저항할 수 없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랑의 갈망으로 발달될 수 있는 나에 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 사람들이 단지 나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나는 단지 존재가 한때 나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자원하여 나에게 향하는 일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나를 믿도록 강요 받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헛되고 그런 믿음은 절대로 내 피조물의 사랑이 절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지 않고 단지 두려워하면서 복종하거나 또는 내 대적자를 향해 다시 타락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열린 눈으로 세상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역사가 관여하지 않는 모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신체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면, 너희가 나에게 돌아 오는 일이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신체만으로도 너희에게 권세가 있고 지혜로운 존재를 증거할 수 있고 너희는 이런 존재와 연합이 되기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모든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하고 너희가 존재하게 만든 아주 온전한 존재를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너희는 자원하여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진실로 너희가 한때 부인하기 원했던 나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환란이 너희에게 다가 오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 가서 너희가 나를 부르기를 기다리고 너희의 연합과 무기력함이 강하고 권세가 있고 너희를 사랑하는 분을 생각하기를 기다린다. 내가 고난을 통해 너희가 나를 찾게 하는 일을 이룬다면, 이런 고난은 축복된 고난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와 영원히 분리되어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희가 한때 자원하여 버렸던 행복과 축복에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빛과 힘을 가진 가운데 나와 함께 내 가까이에서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너희가 나와 다시 연합하고 이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합이 된 가운데 머물 때 단지 가능하다.

아멘

어떤 창조물도 무의미하거나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

B.D. No. 8768

1964년 3월 2일

**비**록 너희 사람들이 물질적인 창조물의 목적을 깨달을 수 없을 지라도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물질적인 창조물은 하나도 없다. 모든 창조물은 영적인 존재가 성장해 나가도록 섬기기 위해 생성되었고, 이런 성장은 비록 묵임을 받은 의지를 가진 의무의 단계에서 일어날 지라도 섬기는 일이다. 이런 단계에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사람들의 섬기는 목적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생성되었고 능가할 수 없는 지혜로 창조물에게 기능이 부여했다. 한 동안은 이런 기능이 단지 자신의 저항을 꺾고 자유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창조물 안에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

그러나 높이 성장해야 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을 통해 굳어진 영적인 존재가 된다. 영적인 존재가 성장하려면, 그는 자신의 저항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창조물은 끝없는 오랜 시간 동안 형태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지만 그럴지라도 목적을 달성하고 영적인

존재를 감싼다. 이런 영적인 존재는 이미 가장 깊고도 깊은 곳을 벗어나 창조물 안에서 자신의 높이 성장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아직 길을 가지 않고 아직 물질에 의해 감싸게 될 수 없는 끝없이 더욱 강하게 굳어진 영적인 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자들은 아직 물질이 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존재가 언젠가 창조물을 거치는 길을 시작하기까지 그런 상태로 오랜 기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창조물 가운데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섬기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각각의 창조물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통해 각각의 창조물이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너희 사람들이 너희의 의지를 통해 각각의 창조물이 섬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게 한다. 많은 창조물의 구성과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일이 바로 이런 창조물에 의해 보장이 되고 창조물은 섬기는 목적을 성취시킨다. 그러므로 창조물이 단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창조물은 그들 자신의 존재를 보장한다. 왜냐하면 한 창조물이 다른 창조물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지혜로 고려되어 정해졌고 하나님은 의미와 목적 없는 어떤 것도 생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그의 사랑과 지혜에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너희 자신이 아직 낮은 수준의 성숙한 정도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부여된 모든 목적을 깨닫는 일은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숙해지면 깨달음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창조물의 기적이 항상 더욱 너희를 감동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희에게 분명하게 되고 창조물들이 무한하게 권세와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창조주를 너희에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주가 목표를 정했고 또한 이런 목표에 확실하게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이 스스로 창조물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창조물이든지 창조물의 섬김을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굳은 물질인 광물의 세계이든 식물의 세계나 동물의 세계이든 창조물은 너희가 항상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물질의 겉형체를 분해시키는 모든 일은 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한 단계 성장하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너희는 불의하게 때가 되지 않은 형체를 분해시켜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실제 올바른 때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졌고 너희는 어떤 것도 성급하게 너희를 섬기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조기에 자유롭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너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고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너희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무 물질에 집착하여 세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자연 법칙을 무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모든 일이 항상 질서의 법칙을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창조물 안과 또한 인간 안에 묶임을 받은 언젠가 자유를 얻어야 할 모든 존재들이 위로 성장하는 일이 보장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않는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이 뒤쳐지고 폭력적인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모든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일을 막는 일이 일어나면, 이런 규제가 일어난다.

창조물 가운데 창조물의 목적이 이뤄야만 하지 않는 창조물은 전혀 없고 모든 창조물은 이 땅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을 섬긴다. 이 땅에 창조물이 생성되는 동안에는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최종적으로 귀하는 일을 목표로 하는 성장 과정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흘러갈 것이고 새로운 창조물들이 계속해서 생성될 것이다. 왜냐면 셀 수 없이 많은 원래의 영들이 아직 자신이 물질이 되기를 기다리고 물질을 거치는 과정을 기다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영원한 출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합법적인 질서에 따라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런 영원한 질서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일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언젠가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모든 것이 다시 영화될 것이고 언젠가 모든 창조물이 단지 존재들을 끝없이 축복되게 하는 영적인 성격을 갖게 생성될 것이다. 왜냐면 존재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축복을 위해 끊임없이 창조하고 역사하기 때문이다.

아멘

지옥. 심판을 받은 물질.

B.D. No. 4062

1947년 6월 14일

영적인 존재들이 굳은 형체 안에서 묶임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심판 받은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 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이 능력으로 생성되게 한분의 결정에 의해 묶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은 물질은 끝없이 긴 기간 동안 아직 근본적인 변화나 또는 분해를 체험하지 못한, 그러므로 어떤 생명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안에서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은 전적으로 힘이 없고, 스스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궁핍히 여길 만한 상태이다. 이는 존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존재가 빛을 추구하면, 다시 말해 그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개선이 되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이다.

(1947년 6월 14일) 존재가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존재는 말할 수 없게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물질이 존재를 포로로 가두고 있다. 존재가 하나님을 대항하며 저항하는 가운데 오래 머물수록,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더 오래 머물고, 항상 무능력하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부족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지속적으로 굳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로써 비록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갈 가능성이 주어졌지만, 자유의지로 떠났던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그들의 감옥생활이 오래갈수록 견딜만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진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사랑의 힘을 거두면, 물질로 굳어진 상태가 된다. 존재가 한때 하나님의 세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신적인 것은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축복되지 못한 것은 고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지옥이라 할 수 있다. 왜냐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가운데 그에게 자신이 "나"라는 자기의식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고통을 느끼는 이런 상태는, 전적으로 원래의 상태와 반대의 상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존재들에게 정해진 것과 반대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깨달음이 부족하다. 왜냐면 이런 부족한 깨달음은 존재가 처해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로써,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변화되는 일과 그의 형편이 나아지는 일은 끝없이 긴 기간의 문제이고, 이 기간은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영원한 기간이다. 존재가 자신의 의지를 통해 스스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의지는 극단적으로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이 그에게 도움이 주지 않으면, 원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피할 수 없게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의 저항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 지는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자신의 피조물도 전적으로 타락하게 놔두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창조물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의 가장 깊은 긍휼을 표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큰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 죄짐을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한다. 영원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시 사용된다. 왜냐면 사람 자신이 사는 동안에 어떠한 창조물이 사라져서, 분해되거나, 변화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물은 지옥의 심판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 안에 담고 있는 창조물이다.

그러나 가장 굳은 물질로 된 창조물도 그 안에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유롭게 해주는 부서지는 시점이 온다. 언젠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분노보다 더 크게 된다. 언젠가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성장하는 과정에 들어선다. 하나님의 공의가 속죄를 행하였기 때문에, 언젠가 지옥의 고통이 줄어들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역사한다. 이 사랑은 가장 깊이 타락한 존재들을 다시 끌어 올린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비추고, 영원한 멸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부터 지속적인 분리되는 일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을 갈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속하여 머물기 때문에,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아멘

화산의 분출은 굳은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한다.

B.D. No. 2175  
1941년 12월 5일

**창**조물의 모든 근본입자들이 영화되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이런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고스러운 일이고, 무한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의 초기의 저항을 힘으로 강제적으로 깨뜨릴 수 없고, 영적인 존재들이 스스로 저항을 포기하는 결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속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특별하게 강한 압력을 통해서만 영적인 존재의 저항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므로, 보이는 창조물은 초기 단계에서 거의 파괴되지 않을 것 같은 특성을 보이고, 그들을 해체하는 일은 단지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폭력적인 해체는 영적인 존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강제적인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유순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의 굳은 형체를 분해하여, 더 이상 이전처럼 영적인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 새로운 걸형체로 다시 형성하면서, 그의 사슬을 느슨하게 해준다. 이전에 굳은 형체의 모든 폭력적인 해체는 그 안에 묶임을 받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해방시키는 역사이지만, 동시에 이미 그 안에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창조물이 변화의 대상이 된다.

왜냐면 굳은 입자를 강제적으로 해체하는 일은 가장 넓은 영역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느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자체로 점진적으로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동안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유를 주고, 영적인 존재들이 이 자유를 활용하여, 존재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을 해체시켜, 원소적인 영적인 존재가 풀려나는 일이다. 그런 분출은 파괴의 영향을 받는 창조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또한 이미 높이 성장한 존재들이 분출로 인해 이전 형체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와 연결을 이루고, 영적인 존재 자신의 섬기는 사명을 따르려는 의지에 따라, 다시 새로운 걸형체 안에 거주한다.

그러므로 이런 격렬한 해체를 통해 영적인 존재들이 다시 이전의 자신들의 속박을 풀어주는 섬기는 일을 하도록 유도된다. 이로써 모든 폭력적인 파괴는 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의 석방과 함께, 높은 성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 영적인 존재들은 이 일을 기뻐하며 환영한다.

이런 분출은 단지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만 고통스러운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그러므로 존재에게 가능했던, 형체 안에 거하는 마지막 거하는 일을 활용하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놀람과 공포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그런 분출이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굳은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무한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저항을 한 후에, 섬기려는 결심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에게 그렇게 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화산 폭발.

B.D. No. 2448

1942년 8월 13일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의 내부와 또한 표면의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일은 끊임없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로써 지각 변동과 상승과 함몰이 발생했고, 또한 변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지각의 이동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 땅은 변함없이 곁형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성질은 동일하게 머물지만, 가장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반면에 이 땅의 내부는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내부에서부터 이 땅의 표면을 변화시킨다. 단 기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서 관찰할 수 없지만, 수천 년에 걸쳐 변화해왔고, 또한 절대로 동일하게 머물지 않은 이런 변화를 식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되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그러므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의 내부의 활동이 제한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땅의 표면에 큰 파괴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놀람과 공포를 갖게 하고, 이전의 굳은 형체가 용해되고, 이 땅의 내부 원소의 억제가 없는 활동을 견디지 못하고, 이 땅의 내부에서 이 땅의 표면까지 엄청난 힘으로 분출이 되어, 흩어져,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이 땅의 흙이나 자연의 창조물에 도에 적응하려고 시도한다. 그런 원소적인 분출은 당연히 이 땅의 전체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

기존의 것은 파괴가 되고, 인간에 의해 세워진 질서는 뒤집히고, 상상할 수 없는 혼돈이 일어나, 사람들은 극심한 당황과 위험에 빠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이 땅의 분출에 대처할 수 없고, 분출을 통해 완전히 다른 생활 조건 아래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1942년 8월 13일) 이에 대한 설명을 단지 영적으로만 해줄 수 있지만, 이 땅의 표면의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변화를 통해 건설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고, 기존의 것이 파괴되고, 소멸이 된다. 그러나 이일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이일은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내부에서 위를 향해 해쳐 나오는 일이고, 영적인 존재는 형체 안에서 자신의 성장과정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무한히 많은 단계를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는 생각할 수 없게 긴 기간 동안 가장 굳은 형체 안에 묶여 있었고, 이제 존재에게 어느정도 자유가 주어져, 존재가 스스로 굳은 형체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한다. 자유롭게 되는 일을 자연의 원소가 수행한 것이다. 이런 힘의 표현을 사람들은 자연 재해로 깨닫고, 그 정도에 따라 사람들에게 크거나, 적게 고통을 준다. 비로 모든 영적인 존재가 다시 묶임을 받지만, 그럴지라도 우선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압박하고, 더 강한 정도로 사람들을 압박하여, 사람들을 그들의 평안함에서 깨어나게 하고, 극도로 위협을 받게 한다.

이 땅의 표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임의로 일어날 수는 없고, 단지 하나님의 동의를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의 더 높은 성장이 정지될 때, 다시 말해 존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일에 동의한다. 그러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가 이미 성장한 영적인 존재를 더 높은 성장 단계로 다시 밀어 넣어, 균형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들이 곧 자유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은 때때로 항상 다른 장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예상해야만 한다. 이런 변화는 항상 지구 내부의 원소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연적인 원인에 기인한 일이다.

그러므로 알게 된 사람은 자연 재해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세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보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것이다. 그는 영적인 존재들의 높은 성장이 필요함에 대해 알고, 마지막 곁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의 저조한 영적인 상태를 알고, 이런 존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 큰 파괴를 초래하는 자연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일의 영적 가치도 또한 세상적 가치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의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공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무기력하게 원소들이 격동하는 일에 노출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때가 되었다고 여기면, 영원으로부터 결정된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아멘

자연의 재난과 그에 대한 영적인 설명.

B.D. No. 2449

1942년 8월 14일

**이** 땅 자체가 끊임없이 회전하고, 이런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자전이 또한 원래의 액체 덩어리에서 이제 모든 종류의 생명체의 거주지가 된, 굳어진 이 땅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핵심은 아직 액체이고, 굳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생명체의 거주지로도 적합하지 않다. 이 액체 덩어리가 분출을 통해 표면으로 가는 길을 연다면, 이런 일은 이 표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완전한 파괴에 해당하고, 그런 분출이 모든 생명체들의 완전한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극도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런 일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 모든 분출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허락해야 하고, 허락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땅의 내부의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활동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이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표면의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땅이 완전히 굳어진다면, 모든 초목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부에서 일하는 영적인 세력들의 활동은 확실하게 이미 영적인 존재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런 세력들이 이 땅에서 형태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야만 할지라도, 이런 세력들에게 언젠가 이 땅에서 그들의 성장과정을 시작할 기회를 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적 재앙은 가장 고도로 발달된 영의 존재인 인간에게는 이 땅의 과정의 끝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의 이 땅의 과정의 시작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로 여길 수 있다.

모든 창조물은 영적인 존재의 성장을 섬기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더 이상 더 높은 혼의 성장을 위해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이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삶을 끝내고, 동시에 성장 초기에 영적인 존재에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준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역사를 통해 동시에 다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은혜를 받은 영적인 존재를 그 안에 담고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멸망시킨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역사하는 곳에서 의미와 목적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연구되지 않은 자연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의 원소적인 역사.

B.D. No. 2744

1943년 5월 17일

**사**람들은 실제 자연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자연의 힘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힘의 도움으로 사물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연의 힘을 남김없이 이해할 수는 없다. 이런 자연의 힘이 서로 간에 어떤 연관관계 가운데 있는지는, 실제로 자연의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그들에게 숨겨져 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한 정보를 절대로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지식은 순수하게 연구를 통해 알아낼 수 없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의 힘의 근원은 영적인 존재에게서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길을 택하지 않고, 영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는 한 설명할 수 없다. 진리에 합당한 설명은 피할 수 없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영적 영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단지 세상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이 나타내는 것에 더 가까워지고, 이를 세부까지 관찰할 수 있고, 따라서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자연의 힘들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힘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연의 힘들이 실제로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사람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이고, 사람들이 영적인 길을 따르지 않는 동안에는 수수께끼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특별하게 자연의 원소들이 역사하면, 이를 연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역사의 기원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의 원소가 역사하는 시간과 유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 태양의 영향을 추론하고 따라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자연적인 힘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 그들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특히 이 분야에서 큰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연의 힘들이 나타내는 효과를 계산하고, 수치로 정할 수 있는 정도로 실제 연구하는 측면에서 성장을 했지만, 원인은 절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놀라게 될 것이고, 이런 자연의 힘들이 역사할지 안 할지 또는 언제 역사하게 될지를 미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원소를 무력화시킬 수 없고, 억제하거나, 시간을 정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자연의 힘들이 나타나는 시간과 유형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의 힘들의 강함과 격렬함을 정할 수 없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어떤 과학적인 연구 없이 시간과 장소를 모두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일이 사람의 성장에 도움을 줄 때 단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일이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자연의 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모르게 한다. 왜냐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고, 혼의 더 높은 성장을 촉진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이 세력들의 원소적인 분노를 알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로 갖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지식을 준다. 하나님이 이런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은 이미 아주 성숙해서, 그들은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힘들의 근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시를 올바른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한 올바른 믿음을 전파한다. 그러나 이성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연구자인 그들에게 근원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가 영적인 설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견자의 계시는 영적으로 받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통해 증명이 될 것이다. 반면에 이성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면 자연의 힘이 나타나는 근거가 그들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의 힘이 나타나는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것에 대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존재와 영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설명을 해주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은 단지 영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굳은 형체의 파괴. 성장 과정의 시작.

B.D. No. 2915

1943년 10월 9일

**섬**기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영적인 존재가 가장 굳은 형체로부터, 가장 단단한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영적인 존재에게 높이 성장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항상 분명히 볼 수 있게 나타나고, 대부분 하나님이 굳은 물질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연의 권세들이 강력하게 변화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첫 걸형체로부터 끝없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자유롭게 되고, 형체는 파괴되어,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수많은 작은 입자로 흩어져, 아직 실제 같은 물질로 머물지만, 그러나 이제 섬기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이런 입자들이 물질로써 인간의 손에 의한 새로운 창조물이나 또는 가장 작은 입자로써 자신의 성품과 섬기려는 의지에 따라 식물의 입자로 흡수가 된다.

말하자면 이런 일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항상 또 다시 변화된 걸형체 안에서 계속되는 성장의 시작이다. 인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파괴의 역사는 또는 섬기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물질을 파괴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즉 영적인 존재가 언제 성장의 길을 시작할지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스스로 섬기는 일을 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굳은 형체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는 또한 인간의 손과 인간의 의지를 통해, 이 땅의 작물을 얻는 일을 통해, 지하자원을 캐내는 일을 통해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물질을 분해하거나 해방시키는 이런 일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항상 이런 채취가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 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다. 즉 캐낸 자원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삶에 필수적인 것 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굳은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자연의 권세에 의한, 지구의 내부를 휘저어 지구 표면으로 운반하는 화산폭발에 의한 파괴의 과정과 동일하다.

이런 화산 분출은 대부분 인간의 손이 거의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화산 분출을 통해 자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진다. 이로써 이제 자원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일을 행할 기회가 주어진다.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존재와 직접 연결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시작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영적인 존재에게 더 높이 성장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대부분 이 땅의 분출은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만드는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가 새로운 형체 안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왜냐면 다시 섬기는 목적을 성취시키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통해 또한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섬기는 사명을 받고, 이런 영적인 존재의 걸형체에게 인간의 손이 접근할 수 없다. 자연 가운데 영적인 존재들이 서로를 섬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섬기려는 의지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모든 형체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섬길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아멘

물질을 재구성한다. 일하는 축복. 구원.

B.D. No. 3993

1947년 3월 7일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항상 일하고, 또한 물질적 형체 안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돕는다. 모든 변화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 주변의 물질이 섬기는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면, 이런 물질을 변형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은 또한 너희가 영적인 위험에 처한 영적인 존재를 돕는 일로 나타나고, 너희는 이런 돕는 일은 영적인 존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너희를 둘러싼 모든 존재가 활동할 수 없다면, 고통을 겪는다. 왜냐면 존재는 활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의 이런 의지에 기초하여 형체 안으로 한 섬기는 일을 하는 목적을 가진 걸형체를 입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의 고통을 연장시키지 않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영적인 존재를 도와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추구하는 일이 소유물을 얻고, 재물을 모으는 일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의 단지 적은 부분이 물질의 실제 목적에 합당하게 만든다. 반면에 그의 대부분의 소유물은 행하지 않고 머물게 된다. 왜냐면 대부분의 소유물이 섬기는 일을 하도록 허용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못한 채, 오랜 동안 물질 안에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가 해체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실패한 곳에서, 사람의 이 땅의 소유물을 향한 욕망이 물질의 실제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인 재물을 모으도록 유도하는 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영적인 존재를 돕는 일은 이해할만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이런 재물을 빼앗고, 이로써 물질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더 높은 기회를 주는 일은 이해할만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물질에 변화를 주는 일을 수행하도록 고난에 빠지게 하면서 구원 역사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모든 소유물이 파괴된 때에 창조적이고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이 사람에게 주어진다. 인간은 이런 가능성을 활용해야 한다. 이로써 자신과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에게 축복이 되게 해야 하고, 모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 한다. 왜냐면 이런 일이 유일하게 구원하고, 영적인 존재의 성장 정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활동하지 않는 일은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허용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땅의 재물을 모으는 일을 통해 활동이 증가하여, 재물이 목적에 합당하게 활용이 되어, 그 안에 묶임을 받은 모든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받는다면, 이 땅의 재물을 모으는 일이 축복된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도와야만 한다.

왜냐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는 대부분 영적인 존재가 섬길 기회를 빼앗긴 곳에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에게 정해줘야만 하거나, 사람의 의지와 생명력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야만 하는 점에서, 인간의 도움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이 큰 축복이 된다. 때문에 물질적인 소유물이 감소되는 일은 항상 열심히 일하게 만들 것이고, 이런 일은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와 인간 자신 모두를 위해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에게 섬길 가능성을 제공할 때,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인간으로써 스스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까지, 항상 또 다시 곁형체를 극복할 수 있게 될 때, 모든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는 과정이 단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주변에 묶임을 받은 존재들의 구원.

B.D. No. 7065

1958년 3월 13일

**만**약에 너희의 사랑이 단지 아직 자유가 없는 그러므로 불행하게 머무는 모든 것을 감싼다면, 너희 모두는 영적인 존재들의 구속에 기여할 수 있다. 사랑은 유일한 구속의 수단이다. 왜냐면 사랑이 너희가 대적자에게 대항해 세운 그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불행한 전적으로 힘이 없이 대적자의 손아귀에 있고 묶여 있는 아직 대적자에게 속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생각하면, 너희가 그들을 돕기 원하면, 너희가 이런 존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너희의 능력을 사용하면, 너희는 진실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구속 역사를 행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일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위로 성장하는 일을 쉽게 해주기 때문이다. 존재들이 더 쉽게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순응하고 곁형체를 쉽게 분해시킬 수 있어 더 빠르게 새로운 형체를 입을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 이런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구속하는 일을 행한다. 만약에 너희의 의지가 항상 단지 묶임을 받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게 돕기 위한 것이면, 이 일은 섬기는 기능을 하는 물질적인 제품을 섬기는 일을 돕는 물질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그러면 모든 일은 그들의 실제적인 목적 외에 영적인 효과를 준다. 너희는 이 효과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한다. 너희 자신도 외적 생명의 영역에 거하게 한다. 이로써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들이 그리고 자연의 세계의 영적인 존재들이 너희에게 자신을 연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발산한다. 이로써 이미 너희 주변의 아직 묶임을 받은 존재들을 잠잠하게 하는 역사를 한다.

너희가 너희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대하면, 너희가 이미 거대한 구속 역사를 행함을 믿을 수 있다. 그럴지라도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행복하게 만들고 도움을 주기 원하는 사랑으로 일상생활에서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을 관찰해야 한다.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는 이런 사랑을 느끼고 항상 더욱 너희를 도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저항을 포기하는 일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 자신이 의식적인

삶을 살고 너희 자신의 과제와 모든 피조물들의 상태와 모든 창조 된 것들의 상태를 의식한다.

너희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소위 죽은 물질을 포함하는 이런 사랑의 상태에 들어가면, 너희 안에 공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은 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자들을 온순하게 만들고 그들이 영화되게 돕는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시에 이런 입자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는 자와 싸워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단지 사랑의 무기로 이런 자에 대해 싸울 수 있다. 단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자의 소유를 빼앗는 일은 바뀔 수 없는 법칙이다.

너희가 이제 물질 안에 묶임을 받는 영적인 존재들도 너희 사랑의 힘 아래 있고 그들이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동시에 너희 손 아래 그들의 저항을 포기함을 단지 알면, 너희 의지를 통해 그들이 섬길 수 있기 위해 변화되는 일을 알면, 너희가 사랑을 통해 너희 안에 같은 변화를 이루는 일을 믿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너희 혼의 원수에 대항하는 아주 효과 있는 무기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항상 이런 질서 없게 너희의 육체의 겉형체 안에 거하는 영적인 입자들에게 적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믿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랑이 고통을 통해 구원역사를 완성할 수 있으면, 사랑은 고통을 받아들인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드러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적자가 이런 사랑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적자에게 단지 사랑으로 대응하는 곳에서 그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그는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먼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시켜야만 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 안에 스스로 구속역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너희 이웃들 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의 모든 창조물들이 물질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너희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통해 그들의 혼의 입자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많은 사랑을 발산하면, 너희 주변에 거하는 존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자신의 저항을 줄인다. 존재는 너희가 발산하는 사랑을 행복하게 느끼고 동시에 너희의 의지대로 섬기면서 존재의 과제를 성취시킨다. 그러나 존재들은 사랑이 없는 발산도 느끼고 강박해지고 비정상적인 발전을 통해 악을 통해 또는 자신의 환경에 적절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일을 통해 이를 나타낸다. 만약에 사랑이 너희 모든 성품을 지배하여 생각하게 하고 행하게 하면, 너희 사람들은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진실로 너희 내면이나 너희 곁에 질서가 없는 상태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사랑이 너희에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일을 보장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진실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고 그러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자원해 복종하는 식으로 질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강제를 통해 어떤 것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랑을 통해 모든 것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올바른 질서에 도달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면, 너희는 이를 통해 너희 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사랑이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을 바꿀 것이다. 혼은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육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중단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이제 대적자가 들어가는 모든 입구를 막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대적자의 역사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위기. 강제적인 조기에 이뤄지는 죽음. 자연 재해.

B.D. No. 1508

1940년 7월 6일

**인**류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될 위기를 향해 다가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를 위기  
로 깨닫지 못하고, 그에 따라 대처를 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가 이 땅의 표면의 정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상상할  
수 있고, 인간이 모든 자연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더 높은 성장을 위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 지 모르는 한,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힘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흘러간다. 이런 일이 먼저 하나  
님이 창조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과제는 영적인 존재가 연합하여, 영적인 존재들이 증가함으로써 더 높은  
성숙한 정도에 도달하는 일이다. 이런 연합은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  
가 각각의 존재들이 다른 존재들과 연합하도록 정해준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창  
조물들에게 그들이 이제 성취시켜야만 하는 그들의 사명을 부여하면서 이뤄진다. 왜냐하면  
존재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강요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  
의지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제 묶인 존재들의 아직 끝내지 않은 과정을 일찍이 마치게 하면서, 다시 말해 그들이 다른 형  
체를 입기 위해 필요한 성장정도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들을 각자의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만  
들면서, 아직 묶인 상태에 있는 이 존재들에게 큰 고난을 가져다주는 큰 위험 가운데 있게 된  
다.

그러므로 이제 묶임을 받지 않게 된 영적인 존재들이 사전에 수행해야 했던 활동에서 벗어나  
나 아직 다음 형체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야만 하  
고, 이는 존재에게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장과정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존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체가 발생한 것이다. 존재는 이제 새로운 형체 안으로 다시  
통합되기 위해 엄청난 투쟁을 해야만 한다. 이런 투쟁은 아직 형체 안에 있는 존재들을 격렬  
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다시 말해 그들이 더 빠르게 일하도록 이끈다. 이로써 묶  
임을 받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의 행하려는 의욕이 아직 묶임을 받은 존재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의 의욕이 특별하게 활발하게 된다. 이런 일이 자연스럽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 증  
가된 활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현존하는 자연 법칙을 벗어나거나, 이 법칙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 자신의 잘못된 의지가 원인이고, 발달에 방해를 받은 존  
재들에게 올바른 균형을 이루는 일을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증가된 활동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증가된 활동을 통해 이제 비정상적인 시간에 그 안에

서 영적인 존재가 원래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의도했던 것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자연의 법을 벗어난 특별한 자연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인간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잘못된 의지의 결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의 영의상태가 너무 저조하여, 하나님과 어떤 연결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이 땅의 과제나 창조 의미와 목적, 모든 존재의 더 높은 성장과 자신의 끝없이 긴 이 땅의 과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창조물에 개입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 창조물은 인간의 손으로 착취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개입이 일찍이 자유롭게 된 존재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개입으로 이제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비록 자신들의 잘못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의지가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의 원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공의롭게 다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 땅은 이제 이런 강제적인 영적인 존재들이 해방되는 일을 기대해야만 한다. 이런 일이 인류의 행위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강제적으로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의 밖과 안에서 항상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촉구하며, 하나님은 이런 활동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에게 부여한 육신을 입는 일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끝냈기 때문이다.


불의를 겪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슬리는 것처럼 보이는 재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보낸 것으로 인정하고 평가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과 지혜를 잘 알고 있고, 위에서 보내는 모든 일을 침착하게 맞이할 수 있다. 재앙이 육체의 종말을 의미할지라도, 그들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창조주께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찬양과 감사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일찌기 파괴하는 일과 그의 결과.

B.D. No. 2313

1942년 4월 25일

 든 물질 안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물질 안에서 존재하도록 정해져 있고, 영적인 존재가 마음대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없다. 단지 사람의 의지만이 물질로부터 영적인 존재를 해방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대로 영적인 존재의 체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을 변형시키고, 항상 또 다시 영적인 존재가 거해야 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나 오랜동안 영적인 존재가 어떤 형체 안에 머물러도 되는지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인간이 물질의 변형을 위해 일하고, 새롭게 형체를 창조하는 목적이 섬기는 일이면, 이런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물질을 이용해 생산하는 모든 것은 다시 인류의 유익을 위해 섬겨야만 한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의 곁형체가 존재하는 기간이 하나님의 뜻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겉형체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일찍 분해가 되고, 새롭게 생성되어야 하는 역사를 통해 섬기는 과제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고, 영적인 존재의 성장과정이 중단되거나,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어떤 피조물을 위해 최대의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인간의 손이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을 통해 성장하는 일을 막는다.

동시에 인간이 거만하게 창조물을 조기에 파괴시켜, 영적인 존재가 조기에 자유롭게 되도록 돕는다. 이런 일은 영적인 삶에 아주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다음 형체 안으로 육신을 입기 위해 필요한 성숙도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이런 일은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적인 존재가 이전의 형체를 완전하게 극복할 때까지 새로운 형체 안에서 살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다가 오는 때에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겉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신의 때가 되어, 이제 새로운 형체 안에서 거하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

(1942년 4월 25일) 사람들의 사랑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물질을 조기에 파괴시키는 일로 인해 성장 과정이 중단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부분에 남아 있는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새로운 형체를 기다린다. 그러나 물질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곳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다른 머물 곳을 찾는다. 영적인 존재들은 그들의 소유하려는 욕구에 따라 먼저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항상 또 다시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육신을 입을 수 있도록 같은 물질을 만들려는 의지를 갖도록 자극한다.

이런 일은 사람에게 자주 고통이 큰 상태를 의미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는 자신들의 성장과정이 중단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원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파괴된 물질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한다면, 물질을 향한 인간의 모든 태도가 얼마나 결정적인 지에 따라, 영적인 존재가 그 근처에 얼마나 오래 동안 머물러, 사람을 공격할지에 따라, 영적인 존재의 공격이 중단이 된다. 물질을 향한 욕망이 클수록, 영적인 존재의 영향력이 커지고, 영적인 존재는 이런 영향력을 더 많이 인간의 욕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인간의 활동을 통해 이런 영적인 존재를 다시 담는 것을 생성하는 일이 불가능한 곳에서 영적인 존재는 다른 창조물을 공격을 한다.

영적인 존재들은 다른 창조물들과 연결을 이루려고 하고, 다른 창조물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자연의 현상을 벗어나는 일로 나타난다. 즉 식물 세계에서 특히 분명하게 불규칙성이 나타난다.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개입을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모든 파괴의 역사가, 고귀하지 못한 동기로 조기에 파괴하는 모든 파괴의 역사가 다시 파괴하는, 질서를 벗어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조기에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는 무력하지 않고, 자유한 상태에서, 같은 성장 정도에 있거나, 더 높은 수준의 성장 정도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항상 공격을 하거나 영향을 미친다. 이

런 존재는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존재와 합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활용한다. 다시 말해 두개의 지능이 이제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이는 항상 단지 시도이다. 왜냐면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가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짧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상태에 간섭을 받고, 심각하지는 않을지라도, 눈에 띄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실제 영적인 존재들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루려는 일을 추구하고, 찾는 일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에 의해 창조물이 중요한 변화를 겪는 일로부터 창조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단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모든 범죄가,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일은 식물의 세계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흉년이 들거나, 날씨 영향으로 나타나고, 이런 일은 자연 가운데, 구름 속에서, 공기 중에서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일이다. 창조물을 조기에 파괴하는, 이로써 식물의 세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의지가 아주 자주 그런 일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는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지 않고, 비록 존재가 자신의 성장 단계에 합당한 걸형체를 찾고, 자신의 성장과정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성숙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새로운 변형되는 일과 새로운 활동할 영역을 찾기 때문이다.

아멘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역사의 결과.

B.D. No. 3300

1944년 10월 20일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타락한 존재를 도와 깊이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맞게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고의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창조물의 사명과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만든 것들도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은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면 존재들이 높은 곳을 향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들이 다시 유용하게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창조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이나 다른 창조물들을 섬겨, 존재들이 계속하여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창조물도 사명을 따라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런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은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과정을 중단시키는 일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옳다 함을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물질을 파괴하던 모든 파괴도 사랑에 근거를 두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옳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섬기는 기능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물을 만들기 위한 파괴는 이웃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파괴는 불법 행위요, 이웃에 대한 불법행위요, 진실로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로 창조한 하나님의 대한 불법행위이다. 이런 불법행위에 무섭게 복수한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랑없음과 미움의 충동으로 파



괴하는 일들로 인해 사람들 자신이 당해야만 하고 또한 순전히 물질적인 측면으로도 또한 당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잃게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잃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특별하게 더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찍이 자유롭게 되어 자신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특히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들이 지속적으로 사람의 혼의 눈앞에 나타나면서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잃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를 통해 혼 자신의 성장이 정체되기 때문 혼에게 큰 해를 끼친다. 혼은 영적인 추구를 게을리하게 될 것이고 혼의 생각은 항상 세상적인 것을 향하게 될 것이다. 창조물이 사람들의 파괴하려는 의지에 희생되고 이로써 사람들에게 창조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했든 사람이 만들었든 건설적인 일을 하려는 모든 창조물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파괴하려는 원칙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현재 세상에서 분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하나님을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 안에 파괴하려는 욕망을 깨어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창조물의 목적과 의미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파괴하는 역사에 대항해 하나님이 훨씬 더 큰 파괴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더 큰 파괴의 역사는 단지 그의 사랑에 근거한 역사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섬기는 과정을 가길 원하는 영적인 존재들을 끝없이 긴 감옥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은 굳은 물질이 부드러워지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의 파괴하려는 의지에 제한을 가하고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물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고 피조물이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 성장할 수 있고 피조물을 성장 수단으로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런 하나님의 파괴의 역사를 사람들이 더욱 심하게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파괴하는 역사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든 창조물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건설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높이 성장하는 일이 유일한 하나님의 질서이다. 사람이 창조한 모든 작품이 섬기는 기능을 충족시키고 섬기려는 의지에서 나오고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보장하는 일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질서이다.

아멘

하나님은 대적자의 파괴하려는 의지.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와 인간.

B.D. No. 4965  
1950년 9월 10일

**이** 세상에서 지속적이지 못한 모든 것은 나의 대적자에게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물질에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들어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한때 나의 대적자가 나를 떠나게 만든 존재들이고, 나에게 저항하는 있는 존재들이다. 물질적인 창조는 내 뜻에 의해 일어났고, 대적자는 창조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럴지라도 대적자에게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그가 물질 안에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의 의지의 작품으로 자신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의지가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존재들을 생성한자의 권세

를 빼앗기 위해, 물질적인 창조물이 생성되게 했고, 대적자는 그가 항상 추구하는 대로 절대로 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파괴할 수 없다.

대적자는 실제 내가 영적인 존재들을 축복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묶임의 상태에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원한다. 왜냐면 자유로운 존재로써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절대로 높은 곳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더 깊게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대적자의 권세를 빼앗아 대적자가 파괴할 수 없는 형체를 창조하였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나에 의해 굳어진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질 안에 아직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권세가 나의 대적자에게 없고 그럴수록 대적자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단계에서,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는 마지막 물질적인 형체에게 자신의 권세를 적용하려고 시도한다. 대적자도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대적자는 모든 방식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이 물질적인 창조물을 악한 의지로 파괴시키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해 대적자는 물질을 파괴시키려는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사람들을 활용한다. 그러나 사람이 대적자의 의지를 따르거나 또는 그에게 저항할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나의 대적자는 이제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행할 사람들을 얻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을 유혹스럽게 사람의 눈 앞에 둔다. 대적자는 사람 안에 물질을 향한 갈망을 불러 일으키거나 또는 높여서, 이를 통해 사람 안에, 자신이 부유하게 되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 물질을 파괴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충동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면 물질이 섬기는 일을 통해 자신을 구원해야 하는 실제 목적을 빼앗긴다. 왜냐면 사람 자신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수는 자신이 파괴할 수 없는 것들이 성장하는 일을 막기 원한다. 그의 파괴하려는 의지가 성취되지 못하면, 그는 지속적이지 못한 것에 지속됨을 부여하려고 시도한다. 물질이 사람을 자극하고, 사람이 물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려고 시도하는 동안에는 사람이 원수 자신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다. 나의 대적자가 사람들이 파괴시키는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일에 성공하면, 일찍이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들은 질서가 파괴되는 정도에 따라 악한 성품을 드러낸다. 이로써 혼란이 일어나고, 나의 대적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사람도 이런 혼란을 느낀다. 왜냐면 순수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은 모든 곳에서 항상 이제 다시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의 대적자의 자극을 받아 불행한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들은 다시 내 뜻에 의해 묶임을 받는다.

자신의 재물이 파괴된 사람들은 각자의 유지하려는 욕구에 따라 항상 또 다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들고, 이 안에 물질을 떠난 존재들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 다시 묶임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작품은 더욱 열심히 섬긴다. 왜냐면 그 안에 영적인 존재들이 원하지 않게 중단해야만 했던 성장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제 행복하게 하지 않는 대적자 아래 속하게 되었을지라도 대적자의 불법적인 역사에 비할 때 나의 모든 작품의 기초가 된 나의 질서가 주는 행복을 느낀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 의지의 힘과 내가 그에게 제공한 은혜를 통해 대적자에게 저항할 수 있고, 물질이 대적자에 의해 당하지 않도록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물질이

섬기는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고, 단지 물질에게 더 높은 섬기는 일을 부여하기 위해 물질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항상 더욱 나의 대적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을 전적으로 나의 의지아래 둔다. 이 가운데 그는 자신을 구원하고, 물질 안에 영적인 존재들이 위로 성장하는 일을 돕고, 나의 대적자가 자신에 대한 어떤 권세도 갖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물질을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그의 의지가 대적자에게 항상 저항한다.

아멘

조기에 파괴되는 일. 세상적인 재물을 쌓아두는 일.

B.D. No. 6666

1956년 10월 12일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은 영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 있다. 이런 창조물들이 정함 받은 사명에 합당하면, 창조물의 성장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이런 창조물이 불법적으로 그들이 정함받은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창조물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즉 자연스럽게 시들어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이나 다른 창조물에 섬기는 일을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일이 불법적으로 창조물이 정함받은 일을 방해하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영적인 존재의 성장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런 개입은 또한 인간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불법적으로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가 같은 종류의 창조물 안으로 다시 묶임을 받을 때까지 난폭하게 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성숙하기 위해 그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면, 영적인 존재에게 부여된 시간이 항상 보장이 된다. 사람들의 개입이 사랑에 근거한 개입이 아니라면 그런 개입은 해가 된다. 이웃 사랑을 동기로 사람에게 축복이 될 무언가를 창조한다면, 이미 성숙하고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는 식물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뿐만 아니라 굳은 물질의 해체할 수 있고 또는 파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동시에 창조물의 목적이 성취되고 영적인 존재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 단지 새로운 겉형체를 입게 된다.

영적인 존재가 의무의 법 아래 있을지라도 단지 섬김을 통해 높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어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런 일은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일이다. 이 땅의 것들이 사용되지 않은 채로 머물게 하고 실제 목적대로 인도받지 못하게 재물을 모아두면, 영적인 존재가 실제 묶여있지만 창조물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는 일은 항상 단지 섬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하는 영적인 존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이웃을 다시 섬기고 유용한 목적에 합당하고 따라서 사용되는 것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런 것을 쌓아두면, 성장 과정이 지연이 되고, 영적인 존재의 성장이 늦어지고 영적인 존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고통을 주고 또한 이 땅의 재물을 쌓아 두는 일을 즐기는 사람은 그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의 상태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묵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는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영역에 머물게 되면 행복하게 느낀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도록 허용되면, 영적인 존재가 묵인 상태에서 느끼는 고통이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저항도 감소하기 때문이고 이제 섬김을 통해 다시 새로운 덜 굳은 걸형체를 허용받는 성장 정도에 도달한 영적 존재에 의해 걸형체가 분쇄되기까지 현재의 걸형체는 항상 더 적은 묵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질 안의 모든 영적인 존재는 섬김을 통해 자신을 구원해야만 하고 너희 사람들은 이를 위해 영적인 존재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도움을 줘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능력을 통해 너희가 창조하는 것이 무엇이든 항상 이웃에게 도움이 주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창조물이 목적을 달성하는 일을 조기에 막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너희를 행동으로 이끄는 동기에 따라 그런 파괴가 또한 너희 사람들 자신에게 불리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일도 또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은 항상 사랑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다. 즉 이웃이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의 분노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이웃을 보호하는 일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에게도 또한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방해받을 경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발명품. 자연의 힘. 믿음.

B.D. No. 1011

1939년 7월 19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능력과 지식이 소용이 없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의 기술을 가진 시대에 자연의 힘이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확신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힘과 자신의 하나님의 힘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에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들이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 생성이 되고, 이 일에 창조주 하나님이 축복을 베푼다. 기술의 발명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영은 인류의 높은 곳을 향한 추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 그러나 오만해지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세력은 연구되지 않은 세력이다. 바로 이런 세력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를 일으킨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자연의 힘을 활용하고, 뭘을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예상치 못한 자연의 세력이 나타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쓸모없게 만든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항상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알맞게 받는다. 모든 자연의 힘 속의 하나님 자신을 깨닫고, 동시에 인간의 유익을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모든 종류의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의 연구와 실험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발명에 함께 할 것이다. 반면에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비범한 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실제 또한 하나님으로 오

는 능력을 요구하면, 이 능력이 그에게 금지되지 않을 것이지만) 불법적으로 이 힘을 소유한다. 왜냐하면 그가 신성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즉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는 교만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곧 역풍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길을 장애물 위에 장애물이 막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장애물은 자연의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모든 일은 그 결과 그대로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적인 어려움을 다양하게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연 원소의 역사에서 자연의 모든 힘이 창조주 주님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가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수행할 의지를 갖은 후에, 그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보지 않는 한, 항상 퇴보한 상태에 머문다.

아멘

자연의 법칙... 이 땅에 주는 변화와 과잉 착취...

B.D. No. 0737

1939년 1월 8일

**보** 이는 세계에서 자연의 모든 법칙은 창조주에 의해, 이 법칙에 작은 위반이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눈에 띄게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전능함이 현존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의 존재이거나 이 땅의 세계의 존재는 창조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연 법칙을 뒤집으려는 노력은 헛되게 될 것이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하고 이로써 이 땅의 표면을 형성하고 조성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이 땅에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한 역사가 계속 존재하려면 인간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만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일은 즉시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연의 세력이 이 땅의 하는 역사가 유익한 것으로 판명이 되는 곳에서 모든 인간이 창조하는 일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은 비록 그가 분명하게 스스로 일한다 할지라도 단지 영원한 신성의 뜻을 수행한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일은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일로써 단지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종종 그 결과가 즉시 눈에 띄지 않아서, 그들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진다. 그러나 인류에게 해로운 영향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눈이 먼 사람들에게 종종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내부와 표면에서 이뤄지는 착취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되면, 사람들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단)

**결** 과적으로 모든 재편이 실제 축진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일로 여기는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만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족함은 작은 악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면서 부족함을 채우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에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에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생명의 작품에 강제적으로 모든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 지나치게 수확물을 얻으려 하지 않는 일이 아주 권장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단지 이 땅의 재물을 증가시키기 위해 일어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추구는 건설적이지 않고, 파괴적이고 그러므로 인류에 해로운 영향을 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모든 행동과 너희의 결정들이 단지 인류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을 뒤로 하고 단지 인류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 창조주의 사랑의 의지가 역사할 것이고, 인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이 땅에서 얻어낸 것에 대해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자신의 뜻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대로 행하고, 이런 일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파괴가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하나님이 인류가 완전히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경우, 어느 한계에 도달한 곳에서 하나님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그러므로 인간이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과 이웃 사람들의 육체나 혼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할 수 없다.

(중단)

**그** 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라: 자연을 이기려고 하는 일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민족들의 육체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섬기는 지역의 이 땅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일은 무모한 시도이다. 그러한 지역에서 성숙하지 못한 무수히 많은 자연의 영들이 자유롭게 되어야만 하고, 또한 이제 자신들을 나타낼 것이고, 그들의 활동은 결코 자연 환경에서 숨겨지지 않고, 이 땅의 내부의 분출을 준비한다. 이 일은 해방된 자연의 영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과정은 자신 안에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는 경직된 형체가 갑자기 해체되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절대로 활동하지 않고 머물 수 없는 이제 어떻게 든 자신을 표현해야만 하는 활동을 이제 전적으로 시작할 때 어떤 엄청난 일들이 전개되어야 만하는지를 상상해보려는 사람들이 단지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통받는 당사자들이고, 자연의 영들이 하는 일이 빠르게 또는 늦게 자연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평안을 심하게 해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자연의 변화가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계속하여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해방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면, 사람들의 혼과 마음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눈에 띄게 나타난다.

단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진정으로 깨닫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행한 상황을 처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이렇게 된 원인이 유일하게 가능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땅을 침범하는 이익을 위한 강한 욕망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은 결코 창조주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창조주의 의지와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행동은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들의 혼을 위해서는 더 호의적이지 않게 역사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와 혼에 해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연의 법칙에 맞서 싸워서 안되기 때문이다.

아멘

공기와 물과 음식물의 오염.

B.D. No. 6855

1957년 6월 23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같은 것을 기대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공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들 각자를 공의로 대해야 한다. 내가 너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 것이고 너희가 스스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에 대해 너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며 너희 자신이 이웃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내 사랑과 내 창조주의 의지가 너희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는 영적인 재물과 세상적인 재물로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내 손으로부터 받고 너희가 스스로 생산할 수 없고 너희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모든 영적인 선물과 모든 세상적인 선물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적인 삶에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으려면,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웃이 그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원한 질서를 어기는 결과가 나타나 잘못된 사람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도 당하고 이로써 창조물이 분해되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떤 자연 요소가 너희에게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이런 요소들이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너희는 이를 이해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에게 최고의 건강을 주는 공기와 물의 특성과 효과를 너희 자신에게서 확실히 보지만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 공기와 물을 오염이 되어 이로 인해 신체기관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본다면, 공기와 물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내 손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죄악성이 아주 중요한 생명의 자산을 오염시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일을 꺼려하지 않는 일만으로 이미 나타난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것처럼 만약에 그가 이웃의 기본적인 생명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하거나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일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사람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자라게 할 수 있게 하는 흙의 자

연적인 특성을 빼앗고 인공적인 수단으로 이 땅이 다른 특성을 갖게 해서 이로써 그런 땅에서 자란 작물 안에 인간의 신체에 절대로 적합하지 않는 다른 성분이 섞이게 하는 일도 포함이 된다.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에 간섭해서 더 낮게 하려고 시도하고 내 창조물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들은 땅이 높은 소출을 올리도록 그들은 잘못 된 수단을 사용한다. 그들은 단지 진실로 축복된 추수를 하기 위해 나에게서 내 축복을 구하면 된다. 이 분야의 또 다른 죄는 소유욕과 물질적이 생각으로 작물들이 성숙하기 전에 추수하는 일이다. (1957년 6월 23일) 이를 통해 인간의 신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입자들과 싸워야만 한다. 이는 순전히 육체에만 관련 된 일이 아니고 너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영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전부 내 영원한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이로써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 의롭게 행하지 않고 이 땅에 무질서가 계속하여 증가하도록 기여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오직 정해진 질서 가운데 사는 삶이 단지 몸과 혼에 올바른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단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위해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물과 좋은 식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어떤 사람도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 해를 끼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웃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영광과 소유욕과 권세욕으로 모든 방식으로 생각할 것 없이 실험을 강행하여 생명의 건강을 해친다. 그러므로 결국 묶여진 존재들을 해방시키면, 존재들이 다시 자기에게 속할 것이라는 잘못 된 판단 아래 모든 창조물들을 파괴하려 자가 승리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자의 권세 아래 놓이고 그들의 속삭임을 따르고 그들은 사랑과 공의를 요구하는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단지 자신과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확실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로 인해 스스로 원인을 제공해서 원소들이 언젠가 큰 파괴력으로 폭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식물의 감소. 폭풍과 기후적인 자연재해.

B.D. No. 1888

1941년 4월 14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땅의 표면에 식물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절대로 우연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특히 기후와 토양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파괴하려는 의지에 희생된, 숲이나 나무에서 일어난다.



그런 삼림의 벌채가 식물의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가 성숙하여 다음 형체에서 살기 위해 성숙해지기 전에, 이르게 이뤄진다면, 그런 사람의 벌채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 이때에 일찍이 해방된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거하는 거처가 사라진 곳에 해를 끼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공격하고, 그의 주변에 자주 원하지 않는 상태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일은 또한 하나님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식물 세계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폭풍과 파괴를 겪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초목이 드문 경우, 다른 재해가 나타난다.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음으로 이 땅의 표면이 사막화가 된다. 그러므로 그런 지역의 땅은 황폐해지고 사막화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자신이 실제 땅 전체가 경작할 수 없게 되고, 과도한 가뭄이 일어나는 진정한 원인이다.

위험은 이제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욕망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땅이 계속 희생되는 일에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그런 지역 전체가 황폐화가 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 창조물을 파괴한다면, 이런 일은 의지를 악한 권세에게 받쳤다는 증거이다. 사람이 돈과 돈의 가치를 위해, 모든 것에 목적을 부여한, 최종적으로 이 땅의 표면의 전체 식물 세계에게도 목적을 부여한,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개입을 한다.

그러나 이런 개입을 즉시 깨달을 수는 없고,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개입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나타내야만 한다. 폭풍과 악천우가 증가하고, 홍수가 식물의 재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식물이 감소하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성숙도에 따라 식물 세계에 머물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새로운 폭풍과 악천후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아멘

운명적인 일에 대한 설명.

B.D. No. 6330

1955년 8월 10일

**사**람들의 혼을 위한 영계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빛의 세계가 사람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한다. 그러나 어두움의 세력들도 같은 일을 한다. 그러나 사람은 어두움의 세력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다. 왜냐하면 물질을 향한 집착이 강하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질적인 재물과 즐거움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빛의 존재들이 인간의 감각을 물질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항상 단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고 자주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다. 그러나 단지 사랑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이다.

종말이 항상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종말은 인간을 위한 모든 물질이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하고 어떤 것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소유물이 사라지는 일을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전에 항상 또 다시 그들의 모든 감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지속적인 것이 아닌지를 체험해야 만한다. 빛의

존재는 사람들의 생각에 거의 접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빛의 존재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권세 있는 개입에 노출돼야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이 땅의 소유물의 무상함을 생각하게 돼야 한다.

너희 사람들이 재앙이나 사고나 모든 종류의 파괴를 통해 이 땅의 물질적인 재물이나 인간의 생명을 잃게 되는 많은 운명적인 일들을 단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 대로 영의 세계가 사용하는 수단들이다. 이런 모든 일은 단지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잃을 가장 큰 위험에 처한 혼을 위한 투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질에게 완전히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일은 그들의 멸망이다.

종말의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런 운명적인 일들이 증가하게 돼야만 하고 이런 운명적인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아직 존재한다. 영의 세계에서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빛의 세계가 어두움의 세계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둘 다 사람들의 혼을 얻기 위해 싸우고 인간 자신이 다툼의 대상이고 인간 자신이 싸움을 끝내야만 하고 각각의 세계는 성공을 기대하는 수단을 사용한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험은 빛의 세계의 수단이다. 이 수단은 단지 좋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저항하지 않으면, 항상 단지 너희에게 확신한 도움을 주는 일을 행한다. 그러나 행복한 삶과 부유함과 이 땅의 기쁨과 세상적인 쾌락은 항상 단지 대적자의 수단이고 너희는 이로부터 도망쳐야 하고 이런 소유물을 즐겨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너희가 영적인 성공을 하면, 너희가 자발적으로 물질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너희의 혼이 영적 재물을 얻게 되면, 너희는 힘들었던 이 땅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조만간 빼앗길 것을 요구하지 말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없고 너희를 영원까지 뒤따라갈 수 있는 영적 재물을 모으라.

아멘

재난과 비참함. 하나님의 뜻이나 또는 하나님의 허용.

B.D. No. 6635

1956년 9월 4일

**세**상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키는 일로 만족한다. 그는 이런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록 그가 영적인 즐거움을 넘치게 누리고 있다고 믿을지라도 그가 단지 세속적인 일에 대한 지식에 관심을 가지면, 그가 누리는 것은 단지 이성을 통해 얻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그는 행복하게 느끼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혼이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지 않고 관철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만족한 상태는 죽을 때까지 지속되지 않거나 또는 단지 희귀하게 지속이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보통 육체적으로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고 질병이나 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땅의 쾌락이나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람이 이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삶과 존재 목적에 대해 자주 생각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1956년 9월 4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또 다시 그에게 다가와 그가 세상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시도하고 혼에게 힘을 주려고 시도해서 혼이 내면으로부터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 추구하는 일을 중단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혼에게 힘이 있으면, 혼이 단지 관철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힘은 외부에서 도움을 통해 와야만 한다. 좋은 대화가 이런 도움이고 영적인 대화나 또는 좋은 책을 통해 또는 이웃의 사랑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이런 도움이다. 이를 통해 혼이 육체에 역사할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 서서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남은 이 땅의 삶을 단지 혼의 성장을 위해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질병과 불행과 세상적인 위험이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일들이고 이런 일들이 자주 세상의 헛된 것임을 깨닫는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수단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인류가 더 많이 세상을 바라볼수록 항상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삶의 즐거움이 증가하는 일과 이 땅의 과도한 기쁨과 세상이 제공하는 감각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항상 부정적인 현상인 불행한 사건들과 질병과 노골적인 비참함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와 동시에 자신의 몸에 쾌락을 향한 탐욕과 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주는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를 통해 몸이 실제 무엇인지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왜냐면 다른 수단으로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성공하지 못하지만 소개하고 좋은 말을 하는 일이 성취시킬 수 없는 일인 그들이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하고 그들이 가장 큰 위험에 빠지는 가장 큰 위험을 벗어나는 일을 이런 수단이 성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걸음으로 보기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뜻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허용으로 간주해야 한다. 비록 이런 일이 악의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거나 또는 대적자의 역사로 일어날지라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일이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혼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후에 훨씬 더 악한 운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이 땅을 일찍 떠나는 일. 목적.

B.D. No. 3258

1944년 9월 16일

**사**람들이 계속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죽게 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비참하게 하는 일을 무기력하게 당한다면, 죽음이 항상 그들 가까이에 있게 된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난의 실제 원인과 사람들이 일찍이 죽는 일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난은 항상 더욱 고통스러운 형태가 되고, 인류는 전적으로 놀라는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것이고, 그들에게 다가온 큰 불행에 경직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비참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혼을 위해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게으름을 벗어나도록 그들을 깨우기 위해 가장 극심한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면 사람이 세상적으로, 육신

적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의 혼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운명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가 이 땅에 고난이 증가되는 원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바꾸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목숨을 잃게 되어야만 한다. 왜냐면 오래 사는 일이 그들의 믿음을 전적으로 잃게 하고, 단지 전적으로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혼에게 유익이 되기 보다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한 성장정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이 퇴보하는 일을 막기위해, 그들이 저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을 허용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이 땅의 상태가 숨겨져 잊지 않고, 그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그들의 혼의 구원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삶 때문에, 믿음 없음과 사랑이 없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 자신에게 어려운 이 땅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일찍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고, 큰 고난을 통해 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은 그들의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삶이 주지 못한,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면 일찍이 목숨을 잃는 일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이땅의 세상의 고난이 아주 크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혼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이 이를 깨닫는다.

큰 고난이, 그들이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면, 모든 위험을 물리칠 수 있고, 물리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큰 위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전적으로 깊은 곳으로 떨어질 가장 큰 위험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을 끝마치게 하고, 비 인간적으로 보이는 불행을 허용한다. 왜냐면 그는 항상 사람의 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가운데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혼을 구하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그가 행하는 어떤 일도 잘못이 없고, 모든 일이 선하고, 사람들의 혼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환란에 대한 정보.

B.D. No. 7475

1959년 12월 11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자주 자연의 권세에 의한 파괴를 모든 종류의 불행한 일들과 재해를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소식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같은 운명이 닥칠지 알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모두가 어떠한 것도 영원으로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추구를 모든 종류의 세상 재물을 뒤쫓는 일을 줄여야 한다. 왜냐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는 모든 것을 남겨 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재산과 재물이 가치가 없게 되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과 모든 종류의 운명적인 일을 통해 이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경고를 해줘야 하는 이 모든 일은 영원한 신성이 공허히 여긴다는 증거이다. 이는 항상 혼의 구원을 지원하기 원하는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게 너희의 삶의 변화를 이루게 너희를 돕기 원하는 그의 사랑의 모든 증거이다.

왜냐면 너희가 세상을 위해 하는 일은 너희가 단지 너희의 이 땅의 사람을 위해 행하는 일은 너희에게 단지 세상의 재물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혼에게 영적인 재물을 제공하면, 너희는 항상 영적인 재물을 가질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기대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 땅의 삶을 떠나면, 이 재물을 영원에 까지 뒤따른다.

왜냐면 영적인 재물은 쇠하지 않고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없으며 이 재물은 한때 저세상에서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아주 자주 모든 세상적인 것의 허무함을 분명하게 보여줄지라도 너희는 절대로 너희 자신에게 이런 운명을 적용해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산다.

시간은 종말을 향해 더욱 다가 간다. 항상 각 개인을 위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제한이 정해져 있고 그 스스로 이 제한을 바꿀 수 없고 바로 내일이 그의 종말의 날이 될 수 있다. 왜냐면 각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항상 이를 생각해야 하고 만약에 그들에게 이 날이 알려지면 어떻게 행했을 것인지 생각한 대로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매일 이 땅을 떠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재물을 계속하여 증가시키고 세상 갈망을 항상 뒤로 해야 한다. 그들은 현재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면 그들은 절대로 미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빠르게 죽은 것을 더 많이 고려하고 그냥 살면서 세상적인 물질을 추구하거나 갈망하지 않고 영원을 위해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 왜냐면 물질은 헛되고 혼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혼은 남는다. 혼은 소멸될 수 없다. 혼의 운명이 좋게 되게 하기 위해 너희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혼에게 축복을 주는 일을 행해야만 한다.

사람은 항상 사랑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진실로 자신의 육체를 위해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혼을 위해 잘 돌보는 것이다. 왜냐면 그는 먼저 자신의 혼을 생각하면, 육체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에게 정해진 바를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끔찍스럽게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을 혼과 육체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나 먼저 혼을 돌보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는 매일 준비되어 있고 죽음이 그를 놀라게 하지 않고 죽음은 그에게는 단지 그가 확실하게 환영받을 자신의 거하는 장소를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아멘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계시하신다.

B.D. No. 8080

1962년 1월 15일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가는 길을 종말 전에 너희가 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모든 것에 관해 나는 너희에게 설명해주시기 원한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을 모르고 있다. 너희는 이에 관한 깨달

음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 왜냐면 그럴 때 너희가 비로소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 이 땅에 거하는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자세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은 너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너희는 먼저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스스로 이에 대해 생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너희의 삶을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진리를 전해주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가 이를 영접하고 진리로 깨달을지 결정적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제 종말 직전에 서 있다. 너희가 종말까지 너희 혼의 성숙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이를 진지하게 여겨야만 하고 의식적으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만 한다.

너희는 먼저 그를 믿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이 세상 밖에 있는 "권세"를 증명해주는 많은 것들을 앞으로 체험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정할 수 없는 너희의 운명을 정하는 너희가 복종해야만 하는 한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면, 너희가 이미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이 권세와 연결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의해 붙잡힘을 받고 진실로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것으로 인도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왜 내가 자주 나 자신을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계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자연에서 재해가 일어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이 소용이 없음을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이런 일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 위의 권세를 깨달아야만 한다.

왜냐면 전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아직 나에게 전적으로 저항하는 생각 가운데 있으면, 일어난 일에 다른 이유를 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모든 종류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계시한다. 그러나 항상 몇몇 사람들은 이를 통해 대화 요청을 받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존재하고 그들 자신이 나로부터 창조되는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종말의 때까지 단지 짧은 시간 만이 남아 있다. 이런 종류의 계시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왜냐면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강박해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아주 어려운 운명적인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무능력하고 자신이 자신을 창조한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아직 몇몇의 혼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또 다시 낮은 음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고 강력하게 말을 할 것이다. 나와 이 땅과의 연결은 항상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은 내가 다시 얻기를 원하는 내 사랑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자연의 원소를 통해 나타나는 음성은 추수가 이루어 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등을 돌린 모든 것이 다시 죽음에 빠지게 되고 새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더 크게 올리게 될 것이다.



세상적인 발전. 곧 일어나는 파괴.

B.D. No. 8542

1963년 6월 28일

**세**상적으로 보면 너희는 지속적인 발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열심으로 세상적인 개선과 세상적인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감각과 추구하는 것은 단지 세상적으로 향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는 지속적인 후퇴이다. 왜냐하면 항상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는다. 이로써 하나님과 모든 연결을 잃는다. 이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전적으로 그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적자가 자기 자신의 나라에만 주위를 기울이는 그러므로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런 세상사람들에 대해 큰 성공함을 의미한다. 세상적인 부유와 명예, 명성이 이런 사람들의 목표이다. 영적인 목표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심장에 황량함과 공허를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아주 희귀하게 경험이 지금까지의 생각을 흔들어 놓거나 또는 바꾸게 한다. 아주 희귀하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활동에 피곤해지고 자신을 드릴 다른 목표를 구한다. 그러면 심각한 운명이 그에게 닥쳐야만 한다.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인도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들 스스로 이런 운명을 피할 할 능력이 없으면, 그들은 스스로 이제 이 운명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삶의 무의미함을 깨달을 수 있는 자신들의 삶의 의지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자신 위에 있는 한 권세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가혹한 운명적인 일은 단지 사람들을 그들의 세상에 편안함에서 깨어 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만약에 그들이 고난과 질병과 다른 가혹한 체험을 통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소용없음을 깨달아야만 하면, 즉 이런 일을 다스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해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높은 권세에 의존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면, 이는 실제로 가능하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전예보다 다른 것을 향할 것이다. 그들의 삶에서 돌아서는 자신을 세상과 세상의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상 편에서의 성장과 성공으로 인해 길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단지 몇몇에 불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은 항상 놀라만 한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영원을 위해 가치가 있는 것으로부터 항상 더욱 멀어지는 큰 계획을 계속하여 추고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물질을 우선에 두는 곳에서는 세상의 대적자가 참여한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물질만을 추구하는 항상 단지 자신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계획만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대적자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적자를 자원해 섬길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더욱 더 물질로 얽매  
것이다. 이로써 자신들의 훗날의 운명을 결정한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지속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  
희는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이로 인해 기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곧 모든 것이 파  
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세상적으로 벌어드린 모든 재물을 잃게 될 것이다. 왜  
냐면 하나님 자신이 너희에게 너희의 생각이 향해 있는 그러나 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이 모든  
것들의 헛됨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올바른 길 가운데 있는 너희는  
미혹을 당할 필요 없다. 너희는 이 땅이 세상적인 성장과 높은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 인간적  
인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서 이 땅이 아주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의 오류를 범하게  
허용하지 말라. 모든 것이 세상적인 길을 간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삶  
의 형편에 처할 것이다. 왜냐면 자연의 권세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  
문이다. 이 가운데 사람들은 견뎌야만 한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이 되었다  
면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그리고 그를 향한 길을 찾고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을 분명하  
게 도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단지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얼마나 세상적인 물질이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깨달음으로부  
터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세상의 물질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이제 단지 영적인  
재산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는 항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축복과 지  
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든 위험 가운데 인도함을 받  
을 것이다.

아멘

자연재해의 목적.

B.D. No. 2086

1941년 9월 25일

**이** 땅이 거대한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이 말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 거론해야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우연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  
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연은 없고, 모든 일이 미리 다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은 높은 곳을 향한 성장의 길을 가고 있다.

다가오는 자연재해는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형체를  
입을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을 구하게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을 구하는 일에 아주 적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  
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움과 놀람에 빠지게 하는 방식일지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이 이 전에 알려지게 된다면, 사람이 연관  
관계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권세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자연의 권세는 가장 믿지 않는 사람도 흔들 수 있고, 그가 믿음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  
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절대로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믿으  
려는 의지도 또한 단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험 가운데 있는 동안에만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신성은 어떤 사람에게도 그가 믿도록 강요받을 정도로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큰 육체의 위험 가운데서도 사람을 자유롭게 놔둔다. 하나님은 실제 아직 온전하지 못한 혼들을 얻기 위해 투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혼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 법칙에 따라, 위험에 빠져 올바른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단지 크게 또는 적게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일에 대해 거론해야만 한다.

인류는 전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어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청해야 하고, 이 전에 그들이 어떤 끔찍한 때를 앞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인류가 단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예언을 무관심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육체와 혼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들은 예언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를 목적으로 예언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주 끔찍하게 나타날지라도, 항상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게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사람들이 이 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면, 사람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게 역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모든 인류가 맞이하는,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다가오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항상 다시 이웃 사람들의 큰 위험을 보고, 재해 가운데서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재해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자연재해는 한 밤중에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빠르게 다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여파는 상상을 할 수 없게 크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람의 의지를 통한 파괴.

B.D. No. 2785

1943년 6월 24일

**사**람의 의지로 일어난 파괴를 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재산과 재물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재물을 경시하고 단지 영적인 재물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온 종말에 자신이 대비하라는 진지하게 경고하는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이다. 이 때는 두려운 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의지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도하는 모든 일이 소용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삶은 건드릴 수 없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종말을 생각할 때 이런 고난의 상태를 통해 이 땅의 삶이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고난의 상태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모든 피조물들은 종말의 때의 싸움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도 이 싸움의 영향을 받고 항상 더 빠르게 형체를 바꾸는 일이 그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또한 일부는 인간의 의지가 실행에 옮기는 파괴의 역사를 통해 일부는 마찬가지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의 생명을 요구되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일찍이 이 땅의 삶의 과정을 끝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희생자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야 한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빠르게 죽음이 삶을 끝마치게 할 수 있는지 의식하고 그들의 혼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돼야만 한다. 사람들이 죽음을 눈 앞에 두게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이 땅의 삶 자체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이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잊는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이제 아주 고통이 심한 체험이 요구된다. 왜냐면 고난이 특별하게 크고 강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고통과 처량함을 지나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직도 바른 것과 올바른 것을 구별할 수 없고 그들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을 좋게 여긴다. 그들은 이웃과 이웃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자기가 행하는 가장 악한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서 동의와 관용을 받으며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악한 세력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악한 세력의 역사를 경멸하기 전에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가 불의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한다. 그는 사랑없음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 체험해야만 하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 변화돼야만 한다. 그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인류가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가 세상 물질이 쓸모 없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물질이 단지 욕망과 죄를 불러일으키고 가장 큰 범죄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비로소 사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인류가 하는 행동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단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가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파괴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준비하는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죽음 후의 삶을 적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죽음 후의 삶을 향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삶의 헛된 것을 알려주면서 이를 통해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의지가 추구하는 일을 허용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조용한 경고자. 큰 목소리와 자연 재해.

B.D. No. 3925

1946년 11월 26일

**위**로부터 오는 반복되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로 흘러들지 말라. 왜냐면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생각하고, 종말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한다면, 매시간 매일이 소중한기 때문이다. 내가 헛되이 부르게 하지 말라. 내가 헛되이 너희의 심장을 두드리게 하지 말고, 내가 들어가기를 갈망하면, 나를 영접하고, 자발적으로 너희 심장의 문을 열라. 내가 말씀 안에서 너희에게 다가 갈 때, 나는 아직 침묵하는 훈계하는 자로 너희에게 다가 간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아, 나의 부름이 높은 곳으로부터 크고 강하게 들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음성의 권세로 인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을지 또는 나의 말씀이 너희 귀를 스쳐 지나가게 할 지는 아직 너희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너희는 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음성을 끄찍하게 느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비록 나의 사랑이 여전히 역사할 지라도, 너희가 더 이상 사랑으로 깨달을 수 없는 나의 분노 앞에 순복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씀은 아직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표시이다. 왜냐하면 나의 말씀이 아버지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경고하는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면, 내 권세가 나타나고, 너희는 나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시간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시간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전에 이미 나를 찾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이런 마지막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일을 나의 말씀이 목표로 한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얻기 원하고, 항상 너희의 자유의지를 고려하면서, 너희를 나에게 이끌기 원하고, 너희를 영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이 땅의 물질과 세상적인 추구를 멀리 하도록 경고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단지 세상과 세상의 기쁨을 버리고, 나와 연합을 시도한다면, 너희가 단지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 다가 가고,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영원히 나를 떠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을 존중하라. 나의 권세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나에게 인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말라. 나의 말씀을 갈망하고, 너희 자신이 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스스로 나에게 오라. 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나의 말씀을 믿고,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라. 이로써 너희가 나의 뜻을 너희 자신의 뜻으로 만들어, 너희가 항상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만드는 일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해 일하고, 너희의 성품을 자체가 순수한 사랑인 나의 성품을 닮게 만드는 일이, 내가 나의 말씀을 통해 이루기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목소리가 크고 강력하게 울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가장 큰 고난의 때에 나의 돌봄을 받고, 내가 구원자요 구세주인 사람들의 무리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고난의 때가 예상치 않게 빠르게 다가오고, 너희 모두는 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쉬지 않고 너희에게 경고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가 아직 짧은 시간을 모든 방식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너희 혼을 생각하고, 육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왜냐하면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혼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창조하고 역사하는 일이 아직 가능한 동안에 혼을 도우라. 혼을 도우려는 진지한 의지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게 하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믿고, 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로 인해 너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가능한 한 최단의 시간에 돌이킬 수 없게 임하게 될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날이 나의 말씀이 진리임을 너희에게 증명하고, 나의 권세와 힘을 너희에게 증명하고, 이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한다.

종말에 대한 예언과 경고.

B.D. No. 6870

1957년 7월 12일

**구**원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땅이 파괴되는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기 까지 너희 사람들에게 아직 짧은 기간이 남아 있다. 너희가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면, 너희 모두는 아직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이 땅의 종말을 맞이하는지 또는 너희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지에 축복이 달려 있다. 왜냐면 너희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종말을 맞이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아직 아주 충분하게 너희 모두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해 자주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귀에 계속해서 너희 모두에게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들리게 될 것이다. 왜냐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암시이고 징조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위에서 울리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사건은 누구에게도 숨겨지지 않을 것이고 종말이 그들에게 또한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 주고 누가 자연재해의 희생양이 될 것 인지에 대해 경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짧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 짧은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종말이 다가오고 모든 각각의 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의 자신의 운명을 만든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너희가 짧은 시간을 단지 잘 활용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맡기고 내 인도를 구하면, 너희가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경고와 훈계를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너희에게 재앙이 다가오게 하고 너희는 재앙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말씀을 믿지 않고 나는 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알려 줄 수 없다. 왜냐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아야만 하고 그러므로 또한 더 명확한 증거를 너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의 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간다. 내가 아직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드릴 것이고 이런 일이 또한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들의 게으른 삶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 그들은 언젠가 놀라서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종말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잠자는 사람들은 그들의 편안함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고 서서히 죽음의 잠에 빠져든다. 그러나 그들의 혼은 단지 죽음을 맞이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자를 더 적게 생각하고 그의 구속역사를 전적으로 무시한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에게 사람들을 지배할 권세가 있고 죄 많은 인류를 위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오직 한 사람이 그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없이는 종말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사건이다. 왜냐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운명에 맡겨지기 때문이고 그들이 구세주 자신을 거부했기 때

문이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홀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을 영접하도록 요구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항상 또 다시 가까운 종말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의 은혜를 받아드리는 일은 그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종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없고 그들이 예수 없이 먼저 이 땅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 그들은 빛의 나라에 의해 영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종말은 돌이킬 수 없게 찾아온다. 그러나 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람들이 혼에 대한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이끈다면, 그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종말이 그들을 놀라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러면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와 연결을 이루게 될 것이고 구속의 역사를 활용할 것이고 이로써 그가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